

15~17세기 族譜 간행의 추이와 성격

序跋文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연재 제5회]

權 奇 爽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4. 수보양상修譜樣相의 추이와 사족사회士族社會의 성격

‘생활보生活譜’의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사족층이 일상생활에서 추구하고자 한 이상적인 혈연의식과 계보관념이 계보기록을 통해 투영될 수 있었다. 이는 공동의 조상의례와 혈연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적 결속의 확대와 궤를 같이 하는 변화였다. 또한 족보의 변화는 중앙과 지방에서 공히 사족사회의 성립과 성격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족보라는 것이 사족사회의 사적인 인간관계(주로 친족관계)에 의해서 작성되고 기록되던 기록인 만큼, 족보의 사회적 영향력은 인간관계망의 형성과 교류 대상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앞 장에서 살펴본 혈연의식의 변화에 따른 족보 편제 방식의 변화와 관련지어 보면, 15~16세기의 내외손 사이의 친족유리 실현을 위한 유대 강화, 그리고 17세기 이후 본격화된 부계 친족집단의 확대라

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하지만 족보의 편찬 작업이 진행되는 양상을 통해 친족관념의 변화라는 문제와 아울러, 양반사족층의 지역적인 활동범위와 교유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여러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현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기할 수 있다.

(1) 수보修譜 규모의 확대와 ‘종합보綜合譜’의 등장

족보가 한 ‘개인’의 개별적 가계기록이 아닌, 다수의 족인의 협력에 의한 ‘집단’의 공동 기록이라는 특성이 뚜렷해졌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제작한 소규모의 개별적인 족보가 수보修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점차 서로의 계보기록을 수합하고 시조를 기준으로 서로 합보合譜하여 ‘종합보綜合譜’로 발전하였다. 종합보의 등장과 확산은 주로 17세기 이후 부계 문중집단의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었고, 15·16세기에는 주로 팔고조도八高祖圖와 가첩류

家牒類의 개별적인 소규모 족보가 다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와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의 경우와 같이, 16세기 이전에도 대규모의 인원을 포괄하는 부계적이지 않은 ‘종합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례는 당시로서도 특기할 만한 사례로 이해될 정도로 흔치 않았다. 개별적인 족보는 자신의 직계直系만을 기재하고 방계傍系를 생략하며, 부인·향년·기일·묘소 소재지 등 협주夾註 기재사항을 직계 조상은 자세히 하고 방계 조상은 생략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는 자기중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상략詳略과 첨삭添削을 달리 하면서 편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가계기록은 각기 소지하고 있던 호적·호구단자 등의 공문서, 묘갈문墓碣文이나 묘지명墓誌銘 등의 금석문을 비롯한 혈통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개

별적인 족보는 또다시 종합적인 족보를 제작하는 자료가 되었다. 17세기 이후의 보다 일개 성씨 또는 지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족보의 서문에 흔히 수보에 이용된 자료로서 열거되는 ‘선세가보先世家譜’·‘가첩家帖’·‘가장家藏’·‘수서소첩手書小帖’ 등이 대개 이러한 개별적인 가계기록이었던 것이다. 앞 장에서 소규모 족보가 동성=동족이라는 의식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족보로 통합되는 과정과 같은 맥락에서, 개별적인 가계기록은 친족집단의 종합보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수보修譜 작업 참여자 구성의 집단적 변화로 이어졌다.

수보 작업 참여자는 17세기 이후 부계 위주의 혈연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내외손의 공동 참여에서 동성친 위주로 변화하였고, 참여하는 동성친도 혈연적으로 원친遠親으로, 지역적으로도 원거리 거주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15~16세기에 발간된 초기족보는 □□안동권씨성화보□□의 예와 같이, 당시의 일상적인 친족관계에 따라 서로 가까이 지내던 내외손 관계의 여러 성씨의 인물이 합동으로 자료수집과 편찬을 맡은 경우가 많았다. 족보 제작의 의지가 독실한 몇몇 인물의 개별적인 협력에 국한되었으므로, 대체로 수보 작업이 한 세대에 완성이 되지 못하고 여러 대에 걸쳐 작업이 계승되는 경우가 많았다. □□안동권씨성화보□□의 경우 권제權堤가 제작한 가보家譜 소첩자小牒子를 그 아들 권람權擎이 증보하였으나, 양대에 걸쳐서도 완성되지 못하여 서거정 등의 권씨의 외손이 협력하여 제작된 것은 그러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여러 세대에 걸쳐 내외친족간에 수보 작업이 계승된 사례는 다수 발견되는데, 수보자들의 범위는 아직 실증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으나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접촉 가능한 내외친족의 범위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전기 족보 편찬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간행을 위한 비용과 공역자工役者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방관으로 재직중인 자손의 역할이 컸다는 점이다. 근대적인 인쇄술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간행하여 배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다수의 족인에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목판으로 새겨 인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는데, 판목版木과 종이를 구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각수刻手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필사본 상태의 족보가 아닌 정식 인쇄본을 내놓을 수 있었다.

필자가 조사한 족보서에서는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 자손이

지방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관행이 꾸준히 나타난다. 수보에 참여한 자손이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지에서 관권官權의 힘을 동원하여 간행하는 행태는, 조선전기의 종합보가 중앙관료적 기반을 확실히 갖춘 가계를 중심으로 발간될 수밖에 없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546년의 순흥안씨 족보는 서문의 필자인 안위安瑋의 사제舍弟 안현安炫이 만든 초고, 족형族兄 안정安琰이 편찬한 보첩, 안현이 영남에서 안절按節하는 동안 생원 안승종安承宗이 소장하고 있는 보첩과 그밖의 다른 족보를 모아 고증한 후, 안씨의 외손인 안동부사 서근成謹에게 위촉하여 모공입자募工入梓하여 제작하였다고 한다. 서문에는 자손으로서 임무를 같이 한 여러 지방관 25명의 직함과 성명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들도 역시 안씨의 외손으로서 전부 타성인이었다. 안위가 지방관으로 재직하는 중 생원 안승종安承宗이 그 소장한 구첩舊牒을 자료로 제공한 사실에서 잘 나타나듯이, 외직外職 근무는 지방 출신 자손과 교류하는 계기가 된 동시에, 함께 외직에 있는 여러 내외손 출신 지방관과의 연락망이 가동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윤증尹拯이 1682년에 지은 ‘중간파평성보후서重刊坡平姓譜後序’에는 역대 족보의 간행 사실이 정리되어 있는데, 천순년간天順年間(1457~1464)에 초간보初刊譜는 호남관찰사湖南觀察使 윤개尹漑가, 1585년의 중간보重刊譜는 호남의 아사亞使(수령首領) 윤면尹勉이, 1634년의 중간보는 윤증의 조부 윤항尹煌이 완산부윤完山府尹으로 재직하면서 간행하였다. 윤증이 서문을 쓴 세번째 중간보도 먼저 참봉 윤숙尹璣이 5권 분량으로 편찬을 마쳤으나 미처 판각하지 못하고 졸하여 함경방백咸鏡方伯 윤지선尹趾善이 완성하였다. 역대로 유력한 지방관이 배출되어야 인쇄본 족보의 지속적인 중간이 가능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밖에도 지방관 재직시 족보를 간행한 사례는 다수 찾을 수 있다.

중앙관료층은 지방관 역임을 통해 지방의 계보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외직 재임시 서로 내외친족 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관과 연락하여 인간印刊에 필요한 인력과 재력을 확보하였다. 지방관 역임을 기회로 한 족보 간행 작업은, 외직外職 재임자 사이의 친족관계망을 통한 연락과 유대관계를 확인하고 강화시킴과 동시에, 각 지방의 계보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앙관인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이다.

12면에서계속

邦, 기원전 256 또는 기원전 247~기원전 195, 재위 8년)가 노나라를 지나게 되었을 때 태위太宰(황제가 희생 가축으로 준비한 제물)로써 공자의 묘에 제사를 지냈다. 이후 제후·경대부·재상이 부임하면 항상 먼저 공자의 묘를 참배한 다음에 정사에 임하였다. 오늘날 곡부曲阜의 공묘孔廟·공부孔府·공림孔林을 일컬어 ‘삼공三孔’이라 한다.

공자는 20세에 이鯉(기원전 532~기원전 483)를 낳았고 그의 자字는 백어伯魚이다. 백어는 태어나서 노나라 소공昭公이 잉어를 하사했기 때문에 이름이 되었다. 집안 정원을 거닐다가 아버지로부터 《시》와 《예》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나이 50세에 공자보다 먼저 죽었다. 백어는 급偁(기원전 483~기원전 402)을 낳았고, 그의 자는 자사子思이다. 자사는 증자曾子(기원전 505~기원전 436, 이름은 삼參, 자는 자여子輿. 공자의 제자)에게 수업을 하였고 일찍이 노나라 목공穆公(?~기원전 376, 이름은 현顯, 재위 33년)의 스승이 되었다. ‘성誠’과 ‘중용中庸’이 그의 학설의 핵심이다. 맹자孟子(기원전 372~기원전 289, 이름은 가

軻, 자는 자여子輿 또는 자거子車)가 그의 학설을 발휘하여 사맹孟軻학파를 형성하였으며, 오늘날 《예기》 가운데 《중용中庸》·《표기表記》·《방기坊記》등은 본래 자사가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별도의 《자사子思》가 있었으나 실전되었고, 62세를 살았다. 자사는 백白을 낳았고 백의 자는 자상子思이다. 자상은 많은 책을 읽고 널리 통하다보니 제나라 위왕威王(?~기원전 320, 성은 전田, 이름이 인제因齊, 전국시대 환공桓公—전오田午—의 아들이고 재위 37년)이 두 번이나 불러 재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47세로 졸하였다. 자상은 구구를 낳았고 구의 자는 자가子家이며 45세를 살았다. 자가는 기箕를 낳았고 기의 자는 자경子京이며 46세를 살았다. 자경은 천穿을 낳았고 천의 자는 자고子高이고 51세를 살았다. 자고는 자신子慎을 낳았고 자신은 57세를 살았으며 위魏나라 재상을 지냈다. 자신은 부鮒를 낳았고 부는 57세를 살았으며 진왕陳王(진승陳勝: ?~기원전 208, 진秦나라 양성陽城—지금의 하남성 등봉현登封縣 동남쪽—사람으로 자는 섭涉이다. 기원전 209년 진秦나라 말기 오광吳廣과 함께 변방 수비병 900명을 이끌고 봉기하여 진현陳縣—

지금의 하남성 회양현淮陽縣—에 초楚나라 정권을 세우고 왕으로 추대됨. 왕으로 칭한 지 6개월 만에 수레를 몰던 장고莊賈에게 살해됨)의 박사博士(고대의 학관學官 이름)가 되었다. 부의 아우 자양子襄은 57세를 살았고 일찍이 한漢나라 혜제惠帝(기원전 210~기원전 188, 이름은 영盈, 고조 유방劉邦의 장자. 재위 7년)의 박사가 되었다가 장사長沙(진秦나라가 설치한 군郡 이름. 관청은 임상臨湘—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장사시長沙市—에 두고 지금의 호남성 동부와 남부와 광서성廣西省 전주全州와 광둥성廣東省 연현連縣 등을 관할함)의 태수太守로 옮겨갔다. 키가 9척 6촌이었다. 자양은 충忠을 낳았고 충은 57세를 살았다. 충은 무武를 낳았고 무는 연년延年과 안국安國을 낳았다. 안국은 한나라 무제武帝(기원전 156~기원전 87, 성은 유劉, 이름은 철徹. 한나라 제7대 황제. 경제景帝 유계劉啓의 아홉째 아들로 7세 때 태자에 책봉되고 16세에 등극하여 재위 54년간 강력한 왕권통치로 영토를 확장함)의 박사가 되었다가 관직이 임회臨淮(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사흥현泗洪縣 남쪽) 태수에게까지 올랐으나 일찍 졸하였다. 안국은 앙印을 낳았고 앙은 환驩을 낳았다.